

관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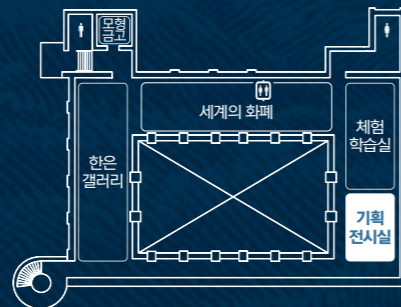
이용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선거일, 근로자의 날 12월 29일 ~ 다음해 1월 2일
입장료	무료
편의시설	유모차 / 휠체어 / 물품보관함(무료)
오시는 길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버스	남대문시장, 롯데영플라자 정류장 하차 ※ 주차 불가

The sea has made history for mankind, enabling all human beings to survive and bringing some of them wealth and power. Even now, the sea has a great influence on many aspects of our live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e future of mankind will also depend heavily on the sea. Regarding Korea, the sea is very important to Korea in terms of economy and diplomacy due to its geographical location. Thus, we need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sea.

This exhibition will introduce stories related to the sea shown in the designs of world currencies. We sincerely hope that this exhibition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examine history, the nature, and our lives related to the sea and time to reflect on the significance of the sea.

2층 기획전시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02)759-4881, 4882

<http://www.bok.or.kr/museum>

표지 | 올디브 5 Ruffiyaa (2015)

Stories of the Sea on Money

2023.1.17~11.19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화폐속 바다 이야기



전시를 열며

Introduction

바다는 모든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누군가에겐 부와 권력을 선사하며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바다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양국가로서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 역시 바다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다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 속에 담겨진 바다를 조명합니다. 화폐 도안에는 인류 문명과 밀접한 바다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있습니다. 이곳에 펼쳐진 이야기를 통해 바다와 관련된 역사, 자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바다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바다 위 역사

History on the Sea

바다는 세계의 역사가 전개되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알프레드 마헨)는 말처럼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권력자의 운명은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고 얼마나 우세한 해양력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바다를 소홀히 한 나라는 결국 무너졌고 망망대해를 건너 미지의 세상을 개척한 이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신항로의 개척

15세기 유럽에서는 향신료를 비롯한 동방의 산물을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지중해를 장악한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무역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대항해시대를 연 나라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Christopher Columbus
엘살바도르, 50 Colones, 1979



항해왕 엔리크 왕자와 카라벨선
Prince Henry the Navigator
and Caravel
포르투갈, 10,000 Escudos, 1996



역사를 바꾼 해전

바다 위 전투는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 나아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육지를 방어하고 해양 자원 및 교통로를 독점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힘써 왔다. 특히 기술력이 집약된 군함은 전쟁의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Admiral Yi Sun-sin and the Turtle Ship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 100원, 1971



트라팔가 해전(1805)의 전함 빅토리오
HMS Victory at the Battle of Trafalgar
지브롤터, 20 Pounds, 2011

바닷속 세상

Undersea World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태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는 지구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였으며 전체 생물종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해양생물은 약 23만 여종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깊은 바닷속 세상은 여전히 미지의 공간입니다.

화폐의 해양생물

바다의 생물은 고기, 가죽, 기름, 약재, 장신구 등 인류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해 왔다. 어떤 생물들은 인간이 친밀감이나 영험함을 느끼는 특별한 존재이며 심지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흑등고래
Humpback whale
통가, 2 Paanga, 2015



대구
Cod
노르웨이, 200 Kroner, 2016



남해진주
South sea pearl
필리핀, 1,000 Piso, 2020

멸종위기 바다동물

인간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온 바다는 환경오염,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많은 해양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바다거북은 모든 종류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



상괘이
Finless porpoise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다도해해상)
20,000원, 2021



매부리바다거북(대모거북)
Hawksbill turtle
브라질, 2 Reals, 2013

바다 걸 사람들

People by the Sea

인류는 바다에 크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며 먹거리와 일거리를 얻었으며 바다 가까운 곳에서 문명이 꽃피고 도시가 성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다를 통해 지식과 예술을 향한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제는 해안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바다로부터 다양한 즐거움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다는 누군가에게는 현실, 누군가에게는 도전과 낭만의 대상으로 인류의 물질·정신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바다의 산업

농경사회 이전부터 인류는 어업을 통해 바다로부터 풍부한 식량을 얻었다. 더 멀리 이동하고 더 많이 운송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은 조선업과 해운업을 발전시켰다. 해수와 해저에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막대한 광물자원이 있어 미래에도 인간은 바다에서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
Fishermen mending nets
페루, 5,000 Liras,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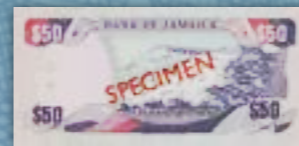
조선소
Shipyard
키보 베르데, 500 Escudos, 1989



해상 석유 시추
Offshore drilling
카타르, 500 Riyals, 1980

바다 여행

이제 바닷가에는 생계나 모험을 위해 바다를 건너려는 이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매력적인 항구도시에는 휴양과 다양한 체험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해양관광 개발은 많은 지역·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닥터스 케이브 해변
Doctor's Cave Beach
자메이카, 50 Dollars, 1995



태안해안국립공원
Taeanhaean National Park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50,000원, 2020

화폐로 보는 선박의 역사

노와 돛을 이용하다

배의 양측에서 밖으로 내밀어진 노를 저어 항해하였다.



갤리선
키프로스, 20 Pounds, 1997



바이킹선
노르웨이, 100 Kroner, 2016

돛을 이용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다

돛을 이용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를 없애고 바람의 힘만으로 항해가 가능한 범선이 등장하였다.



카라크선
포르투갈, 5,000 Escudos, 1995



다우선
아랍에미리트, 20 Dirhams, 2009

증기기관을 장착하다

돛에 의존하던 추진 동력이 증기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증기선
영국, 20 Pounds, 2018
이탈리아, 2,000 Lire, 1990